“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3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5일(음력 9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그간 지은 죄업 참회하옵니다” 서울 봉은사와 봉은사 생전예수재보존회는 10월 28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첫 설행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범음범패 스님들이 신중작법을 펼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0면〉 김내영 기자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정교분리 논란 확산

국회 · 서울시의회 지원 움직임
가톨릭 행사에 공공성 논란 일어
“국가재정 투입, 정교분리 위배”
종교 · 시민사회 철회 촉구 나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를 앞두고 정치권이 잇따라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국제행사로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약 70~100만명 이상이 참가하고 최근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달 19일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33명 의원이 추가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10월 20일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종교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공공성을 지닌 ‘국제행사’가 아닌 특정 종교 신앙과 선교를 위한 ‘종교 행사’에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별법안이 안전 지원을 넘어 시설 신축비 지원, 수익 사업 허용, 후속 사업 등 전방위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조직위원회를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조항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측은 “행사 이후에도 종교단체가 재정적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웃종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5대 종단 및 시민사회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위원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포괄적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정교유착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교단 역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은 종교 지원이 아니라 국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행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 종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직위원회 측도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문화·교육·청년 교류 행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은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적 쟁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특별법이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예산·재산 귀속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면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공공 행사 지원을 원한다면 기존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일반법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를 비롯한 이웃종교들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대회 개최나 교황 방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종교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안에서 제시하는 청년 국제 교류 등의 명분이 정교유착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만큼 공공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따께따 사원학교에 ‘깨끗한 물’ 선물

강금자 씨 두 번째 후원으로 조성
10월 설치 시작…11월 말 완공
재학생 284명 및 교직원 혜택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 학생들이 식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빗물 항아리.

미얀마 양곤 외곽 빈민 지역의 사원학교에 학생들과 스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수시설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뚜카사리 사원학교 정수시설을 후원했던 강금자 불자가 또 다시 설치비를 후원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뒤섞인 물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던 지역에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미얀마 양곤 따께따 타운십에 위치한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에 다기능 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여섯 번째 성과인 이번 정수시설 설치는 11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정수시설이 완공되면 전교생 284명과 교직원 6명, 스님 1명과 함께 사원 거주 스님 5명 등 300여 명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는 현재 자체 상수도 시설이 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침전시킨 뒤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학생들은 빗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마시며 수인성 질병에 상시 노출돼 있다. 양곤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따께따 지역은 특히 빈곤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계를 잇는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일부 가정만이 생수를 구입해 마실 수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 주민들과 학생들은 저수지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생수를 구입해 먹는 학생은 만날 수 없다는 게 로터스월드의 설명이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정수시설은 관정, 각종 필터, 펌프, 물탱크, 수도시설, 정수필터 보호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급수시설을 넘어, 깨끗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터스월드는 완공 후에도 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후원자인 강금자 불자는 앞서서도 미얀마 사원학교 정수시설 지원에 동참한 바 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캠페인 소식을 접한 그는 당시 “아이들이 깨끗한 물 한 모금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서 웃음을 되찾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소감을 전했었다.

로터스월드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NGO로 후원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한 사업 조사와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 예방과 학생 삶의 질 개선, 학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024년 7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사원학교와 빈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전국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미얀마 사원학교 5곳에 정수시설 5기를 완공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사 령

명)편집국 취재차장 하 성 미
2025년 11월 1일부
이상 1명

